

공개서한: 새 질풍노도의 시기를 준비하자!

새로운 혁명적 세계당 건설에 함께 하자!

팔레스타인, 미얀마, 콜롬비아, 아프가니스탄,... 민중봉기와 전쟁이 글로벌 계급투쟁의 새 국면을 열고 있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과 사회주의통합당 (CS 아르헨티나) 연락위원회의 사회주의자들이 드리는 공개장. 2021년 5월 31일.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 & www.thecommunists.net

동지들, 자매들, 형제들!

우리는 세계정세의 전환점에 있다 시온주의 국가는 알쿠즈/예루살렘에서, 가자지구 알 아크 사 모스크에서, 그리고 역사적인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에서 야만적인 침략·아사 정책으로 팔레스타인 인민의 3차 인티파다를 촉발했다. 피억압 대중이 새롭게 통일 단결하여 일궈낸 이 투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5월 18일 총파업이다. 예루살렘에서 예닌으로, 헤브론에서 하 이파로, 라말라에서 리다로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이 총파업으로 가자지구의 저항을 분쇄하려던 이스라엘의 기도는 거대한 정치적 패배로 끝났다. 2008/9년 이래 네 번째 전쟁 가운데 최대의 패배다. 이런 배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 이스라엘 대사 추방, 네 타냐후 전범 기소 등을 요구하는 강력한 국제연대 운동이 솟아나왔다. 오늘 시온주의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약하고, 내부적으로 더 분열되고, 국제적으로 더 고립되었다!

팔레스타인 인티파다가 중동에서 현재진행중인 대중투쟁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그 투쟁들을 고무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사드 폭정에 대항하여 10년 넘어 현재진행중인 시리아의 해방투쟁과 최근 몇 주간 이라크, 레바논, 요르단, 알제리, 오만 등에서의 대규모 시위 등, 이 모든 투쟁은 배반자들과 비겁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아랍 혁명이 여전히 살아서 퍼덕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실제로 중동은 마그레브와 마슈레크의 연합 인티파다를 잉태하고 있다. 알쿠즈에 알제로, 바그다드에서 베이루트로, 카이로에서 카사블랑카로, 그리고 이德利브에서 이스탄불과 이스파한으로!

팔레스타인 인티파다와 아랍 혁명은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혁명투쟁 물결의 일부다.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사쿠데타에 맞선 영웅적인 민중봉기는 대중의 혁명적 공세가 타오른 또 하나의 불길이다. 이미 800 명 이상 시위자가 살해되고 수천 명이 체포된 극악무도한 군부 탄압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중총회와 무장 민병으로 조직 수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 남아시아·동아시아 심장부의 민중봉기가 지금 혁명적 내전으로 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의 또 다른 현재진행중인 계급투쟁들에 힘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태국의 대중시위, 인도의 가난한 농민들의 “델리로 가자” 봉기, 카슈미르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 홍콩에서 스탈린주의-자본가 독재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대중 저항투쟁 등.

또 부패·범죄 정권 두께 정권에 맞선 콜롬비아의 민중봉기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계급투쟁의 대대적인 상승을 비쳐주고 있다. 여기서도 대중은 잔학한 탄압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 스스로를 민중총회로 조직하고 정당방위대를 창설했다. 칠레의 현재진행중인 민중항쟁,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들끓는 긴장 소요, 이 모든 사태는 이미 2019년 가을 각국에서 일련의 민중봉기를 경험한 라틴 아메리카가 언제라도 분출할 정치적 화산이 되었음을 웅변해주고 있다.

4차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패배가 전 세계적인 의의를 가지는 이유는 그 패배가 세계 정치의 근본 변화를 또한 비쳐주고 있어서다. 즉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이자 제국주의 세계질서의 오랜 패권국 미 제국주의의 역사적인 쇠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외국 군대의 점령에 맞선 20년간의 무장 반란 이후 미군·나토군 철수로 결말 난 미국의 아프간 패배도 이 과정의 일부다. 또 확대되고 있는 인민 저항을 맞아 미 국방부가 퇴각을 준비하고 있는 이라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최근 소말리아에서 미국은 무장 인민 저항을 물리치는 데 실패하여 군대를 철수해야만 했다.

미국의 쇠락은 수십 년 동안 패권국으로서 자신이 주도해 온 체제 — 글로벌 자본주의 — 가 쇠퇴·부후화(腐朽化)하고 사멸해가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1929년 이래 최악의 공황을 맞아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와 붕괴의 뗏에 갇혀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쇠퇴·사멸은 제국주의 세계질서의 깊은 위기와 맞물려 있다. 미국의 지배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가운데 다른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떠오르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일본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역할 증가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로 이들 강대국 (및 그 대리인들) 간 패권쟁투가 가속화하면서 각종 제재와 세계무역전쟁,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저들의 사회구성체가 쇠퇴·사멸해가는 가운데 대중투쟁의 급증을 맞은 전 세계 지배계급이 전례 없는 반혁명 공세로 대응하는 것은 논리적인 일이다. 지배계급은 노동자·민중에게 위기를 전가하기 위한 각종 책동과 함께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전환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한다. 즉 집회·시위의 권리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고 인종주의와 배외주의를 부추기며 억압 국가기구를 강화하는 것으로 경제위기와 대중투쟁 급증에 대응하려 하는 것이다. 지배계급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러한 반혁명 공세의 파고를 높이기 위한 구실로 이용한다. 저들의 주장과는 달리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록다운 봉쇄와 통행금지 정책은 공공보건 목적이 아니라 지배 엘리트의 정치권력 이해와 자본가들의 이윤 탐욕에 봉사하는 도구다.

동지들, 형제들, 자매들!

매우 압축된 형태로 이러한 것들이 현 세계정세 모순의 주요 축들이다. 우리가 새 질풍노도의 시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회주의자들은 여기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이 부르주아지의 모든 파벌과 모든 강대국에 대항하는 투쟁 강령을 걸고 싸울 때 비로소 이러한 투쟁들에서 진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깊이 확신한다.

그러나 좌익의 많은 부분들이 말로는 사회주의의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지난 몇 년 동안 계급투쟁과 세계정치의 가장 중요한 시험대들에서 극적인 실패를 거듭했다. 몇 가지 예만 들어 보아도 될 것이다.

스탈린주의자들과 각종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 (LIT-CI, 앨런 우즈의 IMT, 클리프 파 RS/IST 등)은 2013년 7월 잔학한 독재를 수립하여 제국주의에 봉사한 이집트의 엘 시시 군사쿠데타를 환영했다.

또 많은 스탈린주의자들과 볼리바르주의자들은 영웅적인 시리아 혁명을 CIA 기획이라고 처음부터 비방하며 아사드 독재를 편들고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 개입을 환영했다. PTS/FT와 피터 타페의 CWI와 ISA, 그리고 SWP/IST 등과 같은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민중봉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 지지를 철회했다. 진행 중인 해방투쟁을 이렇게 버리고 달아났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좌파 정당들이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정권이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 그리스의 시리자 (SYRIZA) 정권 같은 이른바 “사회주의” 정부를 (비판적으로, 또는 별로 비판적이지도 않게) 지지해 왔다. 이들 정권은 사회주의와는 무관한 정부로서, 오히려 자본주의 착취를 관장하는 인민전선 정부다. 실제로 여러 경우에서 보듯, 자본주의의 쇠퇴로 인해 대중에게 양보할 여지가 이들 정권에 허락되지 않자 이들 부르주아 보나파르트주의 정권은 인민의 항의를 잔인하게 억눌렀다. 오늘 대중이 지배계급에 대항하여 많은 싸움을 벌이자 부르주아 “좌익” 포퓰리즘 당들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부끄럽게도, 많은 “좌파” 정당들이 이러한 인민전선 연합체들에 기회주의적으로 영합하고 있다.

세계정치의 장에서는 많은 개량주의 좌익 단위들이 이 또는 저 제국주의 강대국을 편들고 있다. 유럽의 포스트 스탈린주의 정당들은 ‘자’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충성스런 시종들이다. 이들이 집권 세력으로 있든 (예를 들어 그리스의 시리자, 스페인의 포데모스와 통합좌파와 공산당, 프랑스의 공산당), 원내 야당으로 있든 말이다. 그 밖의 스탈린주의 당들과 볼리바르주의 당들 (예를 들어 남아공, 베네수엘라, 쿠바, 브라질의 이 당들)은 중·러 제국주의와의 협조를 내걸고 있다. 아르헨티나 PO(노동자당)의 알타미라 파와 반 알타미라 파 모두 이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정당은 중동에서 미 제국주의의 개입만 반대할 뿐, 러·중의 개입은 반대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이들 정당은 이 또는 저 강대국의 사회제국주의적 지지자로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PTS/FT, LIT-CI, IMT, CWI 등과 같은 다양한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은 그 정도로 멀리 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국주의로 규정하길 거부한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제국주의적 투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는다.

2020년 봄 이래의 코로나19 반혁명에는 많은 좌익 단위들의 훨씬 더 파멸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좌익들 거의 모두가 — 집권당(의 일부)이든 야당이든, 크든 작든 — 지배계급의 반민

주적 공세에 굴복하여 록다운 봉쇄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 결과, 객관적으로 좌익은, 그 이래로 경찰·감시 국가를 대대적으로 확장시킨 지배계급의 노동 부관으로 복무했다.

동지들, 자매들, 형제들!

이러한 배신자 좌익은 이 또는 저 부르주아지 파벌에게는, 이 또는 저 제국주의 강대국에게는 유용하지만 노동자·피억압자에게는 쓸모가 없다. 이들 배신자 좌익은 노동자 전위에게 투쟁 방향이나 투쟁 강령을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기회주의 좌익은 의회 의석 몇 개 따내는 데나, 노동조합과 민중단체의 관료기구 내 자리를 얻는 데나 관심 있다.

누구도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기존 좌익은 구제불능으로 개량주의·선거주의에 중독되어 있다. 부르주아지의 한 파벌에, 강대국 한 진영에 영합하는 정책, 중간계급 특권적 부분들과 노동귀족층과 관료기구에 주파수를 맞추는 정책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염되어 있다. 이 기존 좌익은 문제의 일부이지 해결책의 일부가 아니다!

모든 진실 된 사회주의 조직과 활동가들은 그러한 패배·퇴보의 무력한 정책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비타협적인 투쟁의 길로 눈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길이 있을 뿐으로, 그 길은 넓고 썩은 모든 것과의 결정적인 단절을 요구한다!

동지들, 형제들, 자매들!

우리에게는 기존 기회주의 좌익과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

△ 반동독재를 편 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피억압자의 투쟁을 지지하는 새로운 당이 필요하다.

△ 소비에트 이중권력 기관의 창설을 촉진하는 새로운 당이 필요하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기관을 통해 노동자·민중은 자신의 반란을 조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열어줄 민주적 도구 — 자본가 권력 타도 후에 새로운 노동자국가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기구 — 도 가질 수 있게 된다.

△ 정당방위대와 민병의 창설을 제창하는 새로운 당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중의 무장 조직이야말로 지배계급 — 점점 더 억압적, 보나파르트주의적 정권 (지금 콜롬비아와 미얀마에서 처럼)에 기대는 — 의 반혁명 공세에 대항할 단 하나의 길이다.

△ 자본가계급의 반민주 정책을 지지하는 것에 반대하여, 자본가계급의 모든 부분에 대항하는 새로운 당이 필요하다.

△ 제국주의 강대국 어느 한 진영을 지지하는 것에 반대하여,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항

하는 새로운 당이 필요하다.

△ 지배계급 어느 한 부분을, 제국주의 강대국 어느 한 진영을 섬기는 세력들처럼 인민전선의 뒤편에 빠지지 않도록 대중에게 경고하는 새로운 당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당은 노동자·피억압자를 그러한 인민전선에서 벗어나게 하고, 독립적으로 노동자·피억압자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조직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 가장 각성한 전투적 전위 분자들, 계급투쟁 일선을 담당하는 인사들을 결집하는 새로운 당이 필요하다.

△ 상층부와 관료기구가 아니라 모든 일상적 고통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광범한 대중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다가가는 새로운 당이 필요하다.

△ 모든 대륙, 모든 나라에서 국제 사회주의혁명과 노동자·민중 정부 수립을 위해 싸우는 새로운 당이 필요하다.

△ 그러한 당은 일국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존재해야 한다.

동지들, 자매들, 형제들!

그러한 당이 아직 없다.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만들어져야 한다. 남이 만들기를 기다리지 마라. 우리 스스로 함께 만들자! 여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7일 안에 당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며, 우리는 지금 이 목표를 위해 공동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동지가 이 공개서한의 기본 방향을 공유한다면, 혁명적 세계당 건설 투쟁을 추진하기 위해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과 사회주의통합당 연락위원회에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요청 드린다!

동지들, 형제자매들! 주저하지 말자! 착취와 억압 없는 사회주의 세계를 위해 기꺼이 싸우려 한다면, 동지들의 자리는 우리 대열에 있다!

* * * * *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과 사회주의통합당 연락위원회의 여러 공동 문서가 있다.

War and Intifada in Palestine: A Turning Point in the World Situation, 22 May
2 0 2 1 ,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ar-and-intifada-in-palestine-a-turning-point-in-the-world-situation/>

4차 가자 전쟁에 관한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les-on-fourth-gaza-war/> respectively can be found at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

또 미얀마 민중항쟁에 관한 다음 문서도 보라. Myanmar: International Solidarity with the Popular Uprising! 6 Ma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myanmar-international-solidarity-with-popular-uprising/#anker_1